

조을제 · 박병윤

기고, 안면부에서는 주로 연조직을 침범하며 부분적으로는 치유되지 않는다.

이는 종양을 이루는 주된 조직세포에 따라 신경종, 혈관종, 림프관종 등으로 나뉘어진다.

림프관종은 다시 조직학적 분류상 단순성 림프관종, 해면상 림프관종, 낭포성 림프관종 및 림프혈관종으로 나눌 수 있으며, 진단은 임상적, 조직학적 소견으로 판단할 수 있다.

본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성형외과에서는 혀에 발생한 림프관종 4례를 경험하였다. 이 중 6세된 영아로 좌측경부에 수혈액낭종과 거대설 및 이상발육으로 인한 하악골 변형을 동반한 예에서 안면신경의 근위부를 보존하는 보존적 경부 림프절 청소술과 거대설부 절제술 및 환부의 설신경을 림프관종으로부터 박리하여 남아있는 설부로 이 전시켜 보존함으로써 혀의 미각을 살릴 수 있었으며, 이상발육을 한 하악골부를 제거하여 치료한 결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다른 3례에서도 림프관종 절개와 동시에 하악골 시상분리등의 재건술을 시행함으로써 술후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으며 장기간 추적관찰을 통하여 부정교합등의 동반, 안면부 변형의 재발이 거의 없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소아에 그 발생 빈도가 높은 림프관종으로 인한 심한 안면부 변형을 조기에 교정함으로써 정상적인 발육을 도모하고, 미용적 그리고 기능적 장애 및 정신적 고통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었기에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 30 —

두개골 조기 유합증의 수술적 교정

두개골 조기유합증이란 두개골이나 두개골기저부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봉합선의 조기유합증을 나타내는 질병으로, 그 수술적 교정술은 성형외과의 새로운 분야의 하나이다.

Paul Tessier 이후 많은 저자들의 노력으로 두개골 조기 유합증의 수술적 교정술은 방법과 수술시기에 있어 많은 발전이 있어왔다. 저자들은 지난 6년동안 17례의 두개골 조기유합증 환자를 수술하였으며 그 결과에 대하여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고자 한다.

환자들은 4명의 trigonocephaly, 3명의 plagiocephaly, 5명의 brachycephaly, 그리고 2명의 scaphocephaly로 구성 되었으며 2명의 scaphocephaly를 제외한 15명의 환자에 있어, supraorbital band advancement and forehead remodeling을 시행하였고, 2명의 scaphocephaly 환자에 있어서는 cranial vault remodeling을 시행하였으며 술후 합병증으로 1례의 사망, 1례의 감염이 있었다. 결과는 두개골 조기유합증의 유형에 따라 분석 하였으며, 원격추적 결과 5명의 환자에 있어 기능적인면과 미용적인 면에서, 11명의 환자에 있어서는 미용적인 면에서만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다. 결론적으로 첫째, plagiocephaly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둘째, 17례중 8례(47.1%)에서 중추신경계 이상을 동반하였고, 셋째, 두개골 조기유합증의 조기발견이 중요하며, 또한 두개골 기저부의 수술적 교정은 생후 4개월 이전에 함으로써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